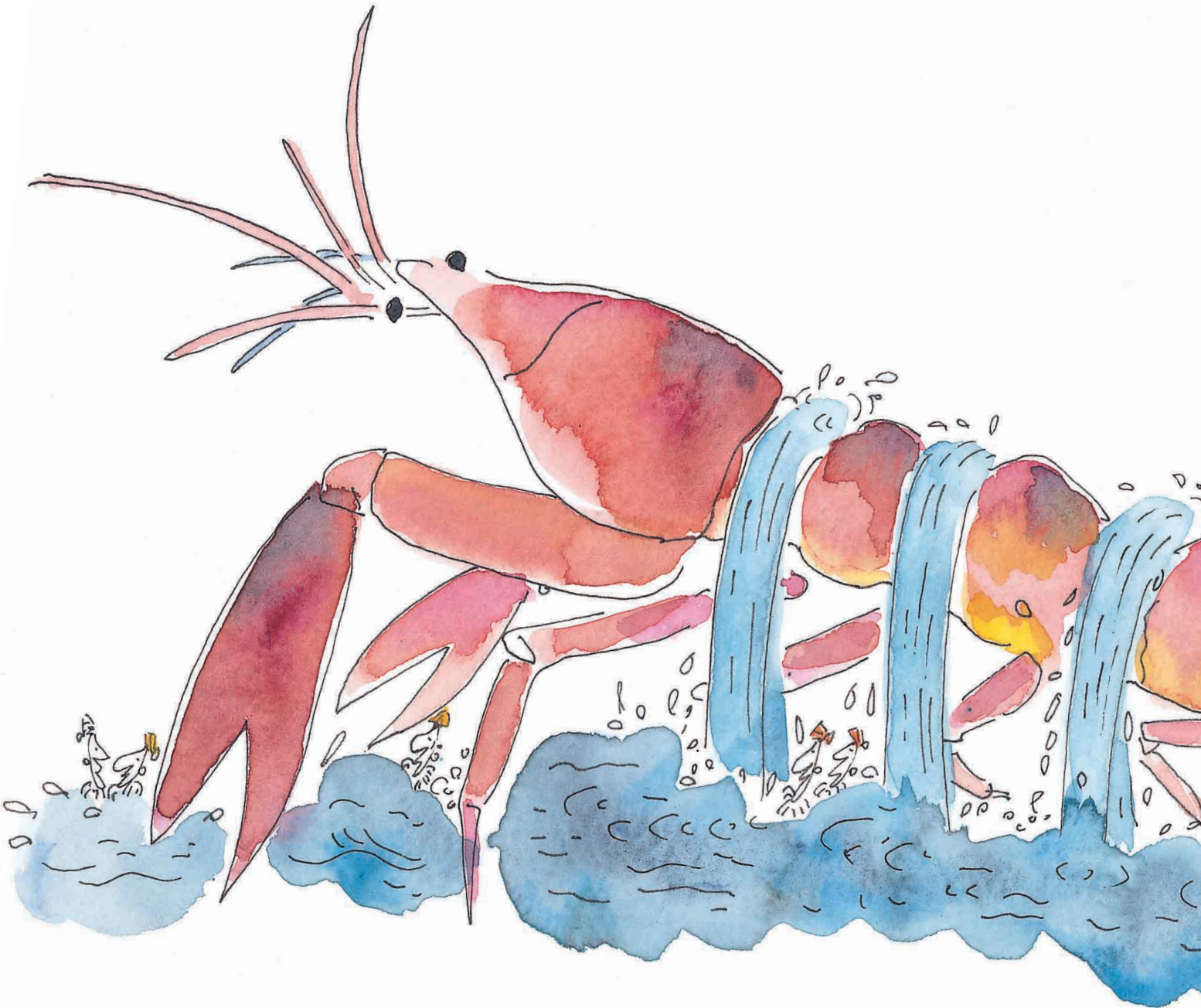


생활용수 편

수질오염의 주범, 합성세제



우리나라에는 낙동강 등 5개의 큰 강을 비롯해서 3,900여 개의 하천이 있다. 그런데 이 하천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생활하수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있다 한다. 강은 원래 스스로 오염 물질을 없애서 깨끗하게 하는 능력(자정능력)이 있지만, 오염 물질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 자정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당신은 화장실 변기를 타고 내려가는 세정제의 파란 물을 볼 때나 샴푸와 린스로 머리를 감을 때 하수구 주위에 넘쳐나는 거품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글·편집실 일러스트·강창욱

우리는 생활에서 많은 합성세제를 쓰고 있다. 설거지할 때, 빨래할 때, 머리 감을 때와 변기에도 세정제 등의 합성세제를 사용하고 있다. 비누를 뺀 모든 세제가 합성세제인 셈이다. 그런데 이 합성세제에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양분이 되는 물질이 많이 들어 있어서 합성세제가 그대로 강에 흘러 들어가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이 생기는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식물성 플랑크톤이 너무 많이 생기면 산소가 모자라게 되어 물 속 생물들이 죽고, 물 속 생물들이 썩으면서 내뿜는 메탄가스 때문에 물고기까지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 합성세제에서 일어나는 거품이 물 위에 떠 있으면 물 속으로 산소가 충분히 녹아들지 못하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물고기들은 숨쉬기가 어려워지며, 물 속에 사는

식물들은 광합성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런 거품들을 모두 걷어 내려고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합성세제가 말끔하게 없어지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수장에서 합성세제 성분을 없애려면 어마어마한 처리비용이 든다. 우리나라는 강의 길이가 짧아서, 지금처럼 가정에서 합성세제가 많이 배출되면 강이 다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분해가 덜 된 합성세제 성분은 결국 바다까지 흘러 들어가 바다마저 오염시킨다. 이렇게 썩어가는 하천과 바다를 생각한다면, 가정내에서 손쉽게 사용하는 합성세제에 대해 다시한번 고민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



우리 함께 실천해 보아요

- ※ 머리를 감을 때는 샴푸 대신 비누를 쓰고, 린스 대신 동백기름이나 식초를 한두 방울 물에 넣어서 헹구자.
- ※ 빨래를 행굴 때 섬유유연제를 사용하지 말고 식초를 사용하자.
- ※ 변기세정제 대신 더운 물에 칫솔가락 하나 정도의 붕산을 녹여서 사용해 보자.
- ※ 설거지를 할 때 쌀뜨물을 써 보자. 쌀뜨물은 훌륭한 '천연세제'로 기름기까지 쉽게 없앨 수 있다. 하지만 쌀뜨물도 그냥 버리면 물을 오염시키므로, 설거지를 하고 난 다음에는 화분에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채소 데친 물도 훌륭한 세제가 된다.

